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서울포스트신문 4면

■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박문수 의원...도로명새주소 홍보에 철저를



12월 2일 제 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문수 의원이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1910년부터 100년 동안 사용해 오던 우리나라의 현행 주소체계가 '도

로명 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박문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불과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편물 주소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한 경우도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강

북구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불과 30일 앞둔 현재,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투자 대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전 세대에 배부되는 안내문이 단 한 세대도 빠짐없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구청과 동 주민센터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는 물론 수시로 배부상황을 확인하는 등 홍보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북 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도로명이 상당 수 있는 것이 현실을 꼬집고 대표적인 것으로 "도봉로, 덕릉로, 노해로, 월계로"가 있으며 또한 "길"급에서는 우이동 지역에 부여된 "삼양로길"이 있다고 지적하고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해당 도로명 주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도로명이 하루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